‘전통’의 의미로 본 태권도사

차명환*(용인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태권도사의 형성과정을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입장이 지니는 의미와 함께, 태권도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기능하였던 ‘전통’의 의미를 회의(懷疑)하여 태권도사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태권도사의 형성과정에서 전통주의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고, 초창기 태권도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주의를 통하여 당시의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정주의의 등장은 태권도사의 단순한 분화가 아니라 기존의 이론체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이다. 전통주의와는 다른 실증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또 다른 세계관이 등장하여 태권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태권도사는 훨씬 더 풍부하고 공고해진 것이다. 셋째, ‘전통’은 그 시원(始原)과 단절되지 않는 장구한 역사만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계승’과 ‘단절’ 모두가 전통이 수립되는 과정임을 이해한다면 태권도는 굳이 과거의 역사를 소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적인 특성과 문화적 개성으로 재창조된 ‘전통’임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권도사, 전통, 인식론

---

* chamh@yongin.ac.kr

I. 서론

동양의 문화와 사상이 서구의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의 무예는 그 외연을 학문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한다. 동양무예의 문화적 접근에 관한 저작으로는 Eugen Herrigel(1948)의 『Zen in the Kunst des Bogenschiessens』¹⁾ 과 Seymour Kleinman (1986)의 『Mind and Body: East Meets West』²⁾ 등이 대표적이며, 서구 현대사회에서 먼저 동양무예에 관한 담론이 문화적, 교육적 가치 등을 내재한 학문적 소재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무예의 본질탐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이 시도된다.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며 한국과 유사한 무도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일본은 무사와 무사도, 중국은 소림사와 소림무술 등 자국 무예에 대한 문화 및 사상사적 재해석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보의 수단으로 자국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일본의 무사도는 본래 전장에서 살상 기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사의 마음가짐, 태도, 공방의 기술 등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아실현을 위한 윤리적 소재로 그 사상적 차원을 달리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사상으로 고착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소림사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현재 중국정부의 공인체육 교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소림무술이 전통기

-
- 1) “학술연구의 대상으로 동양무술의 수련과정이 처음 서구에 소개된 것은 Eugen Herrigel의 『활쏘기의 기예에서의 선』(Zen in the Kunst des Bogenschiessens, 1948)을 통해서이다. 이 책은 직접적인 수련체험을 통해 동양의 선(禪-Zen)사상을 서구에 소개한 것으로 신칸트학파의 철학자와 선(禪)사상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사상사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명환, 2014:51).
  - 2) “Seymour Kleinman은 《Mind and Body: East Meets West》에서 동양 사상에 바탕을 둔 선(禪), 무도(武道) 등의 개념으로 북미와 유럽에 동양적 체육관(體育觀)을 소개하고 동양적 신체 활동을 서양의 체육 사상과 상호 교류하는 가교로 해석하고 있다” (스티븐 캐페너, 1998:2).

에 및 국가체육의 핵심소재로 보호 육성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무술의 학문화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종목을 태권도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해방이후 태권도의 학문화 과정에 나타난 사상연구의 경향은 주로 유교, 불교, 도교 등 삼교의 전통사상과 한 사상, 화랑도사상 등이 내포하고 있는 수행방법 및 가치규범 등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태권도를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탐구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태권도역사와 철학의 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특히 해방이후 태권도가 한국의 무술로써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태권도 역사정립의 필요성은 사회, 문화적 의미규정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듯하다.³⁾ 송형석, 이규형(2008)의 주장을 통해 이 시기 전통성이 강조된 태권도사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태권도사에 대한 관심은 태권도의 역사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 보다는 태권도의 사회, 문화적 의미규정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이루어진 태권도사서술은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태권도의 사회, 문화적 의미규정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송형석, 이규형, 2008:160).

이 시기의 태권도사는 대체로 우리민족의 주체성, 독창성, 우월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태권도의 역사서술로 ‘전통성의 확보’를 핵심 담론으로 인식하고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⁴⁾ ‘전통’의 강조는 곧 “무술의 기원과 발달과정, 그리고 현대무술의 문

3) “이를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최홍희인 듯하다. 최홍희는 역사학자 이선근과 함께 태권도의 역사정립(1966, 1971)을 통하여 전통무술로서의 태권도의 논리적 근거 마련을 시작하였다” (양진방, 1997:143).

4)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전통성 또는 한국적인 것의 맹목적 집착은 먼저 역사적 사실의 왜곡, 아전인수식 끌어대기, 근거가 부족한 야사나 신화적 사실의 인용

화적 의미 등을 조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무술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차명환, 2014)”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 전통이 강조된 역사관은 태권도와 전통무예의 구체적인 접목과정과 역사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일반화의 오류와 함께 객관적 역사관과 동떨어진 논리적 한계에 다다르기 쉽다는 지적이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된다.⁵⁾ 이러한 형태의 역사기술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초창기 태권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시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로가 역사인식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태권도사의 형성과정을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전통주의 태권도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기능하였던 ‘전통’의 의미를 회의하여 태권도사 연구의 인식론적 외연을 확장해 보고자 하였다.

II. 태권도사의 형성

해방이후 태권도역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해는 한국의 전통무술을 계승 발전시켜 현재의 태권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정설로 이해되어 태권도 역사 이론을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최홍희, 이선근, 조완목, 나현성, 정찬모, 김광성·김경지, 이규석 등의 연구로서 태권도가 우리민족 고유의 무예임을 주장하는 ‘태권도 전통설’”(김기홍, 김동규, 2005:91)을 의미한다.

등 역사 연구 그 자체를 무리, 무지하게 만든다”(양진방, 1998:22)는 지적이 보인다.

- 5) “전통주의 태권도사 연구자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지평과 실천적 지향은 민족주의라는 폐쇄된 논리구조 속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수박에서 택견, 그리고 택견에서 태권도로의 시간 축에 따른 진화를 주장하며 동시에 태권도가 수박을 규정하는 순환 논리의 구조 속에서 오늘의 태권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최복규, 2018:5).

이러한 태권도 전통설은 수정주의 이론이 대두되면서 ‘전통주의’ 역사이론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가라테의 유입설을 주장하는 ‘수정주의’와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 영속된 전통무술임을 주장하는 ‘전통주의’ 간의 상호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게 된다. 결국 전통주의⁶⁾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태권도의 원류를 한국의 전통무예로 보는 입장이며, 수정주의⁷⁾는 사실주의적 관점으로 일본의 가라테유입을 태권도의 원류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수정주의의 등장이후 기존의 전통주의의 주장을 지지, 보완하는 형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논지의 주장들을 ‘신전통주의’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전통주의 역시 가라테 유입설을 거부하고, 태권도의 고대 전래설, 택견과 태권도의 연관성 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통주의의 입장으로 포괄하여 해석하였다. 전통주의 태권도사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원시시대에 발생하여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하면서 체계화되었으며 그 명칭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수박이었으며,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러 권법으로 바뀌었고, 구한말에 이르러 태권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해방 이후 태권도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송형석, 2002:5).

위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여 2005년 초판이 발행된 국기원 태권도교본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사분법으로 구분하고, 고대 고구려의 선배와 신라의 화랑이 수련했던 무예로 택견, 중세에는 수박, 근세 조선

-
- 6) “현대 태권도가 한국에서 고대로부터 전래된 무예로 보는 입장이며 이에 따르면 태권도는 조선시대까지 전승된 택견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화된 형태라고 보는 입장이다” (김방출, 2006:76).
  - 7) 역사적 사실의 연관성을 태권도 역사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으로 양진방(1986)의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이후, 김용욱(1990)이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를 통해 태권도의 기원 및 발달과정에 따르는 역사적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태권도 역사이론으로 대두되게 된다.

시대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권법 등 한국고대의 전통무술이 현대의 태권도로 전승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⁸⁾ 또한, 전통주의 역사이론과 함께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상적 논의 역시 한국의 전통사상과 태권도 정신을 일치시키기 위한 형태를 띠며 접근되어 왔다.

태권도 정신은 고대로부터 흘러 내려온 민족 고유의 전통과 사상을 발전시켜 신라인의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킨 화랑도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화랑도 정신은 한민족의 정신적 기둥인 선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의 호국사상과 유교의 충효사상, 도교의 무언실행이 함유되어 주류를 이룬 자주의 정신이며, 진취적 기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이경훈, 빙원철, 2009:97).

화랑도⁹⁾의 경우에서 보듯 대부분의 태권도정신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들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를 관통하였던 한국의 전통 사상과의 연관성을 통해 태권도 정신의 근간은 한국의 전통사상에 의해 발견되어 화랑도로 계승되는 형태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정신들이 태권도 정신에 영속되어 왔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초의 태권도서적인 『태권도 교본』(최홍희, 1966)을 비롯하여 국기원 『태권도 교본』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정신의 철학적 배경으로 화랑도,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 선(仙)사상 등 유, 불, 선, 동학, 천도사상까지 아우르며 우리민족 전통 사상과 태권도 정신의 철학적 배경을 합일화 하고 있다.¹⁰⁾

이렇듯 ‘전통’을 강조하며 태권도가 민족전통의 철학을 담고, 그 독창성

8) 국기원(2005). 『태권도교본』. 형설출판사.

9) “화랑도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상인 선(禪)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불교의 윤회 사상, 유교의 충효 사상, 도교의 무언(無言) 사상이 수용되어 이루어진 정신이며, 진취적 기상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또한 태권도 정신의 근간을 이룬 충효 사상과 임전무퇴의 용맹성, 지행합일의 실천적 이론 사상이 오늘날 평화 정신, 정의를 수호하는 결백 정신 및 투철한 책임감 등으로 한국인의 정신 속에 이어져 오는 것이다” (김경지, 1993:145).

10) 국기원(2005). 태권도교본. 형설출판사.

및 우월성이 내포된 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통주의의 입장으로 양진방(1997)은 전통주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기존의 태권도사 기술의 근본적 목적은 태권도의 정통성의 역사적 근거 마련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맨손무술을 태권도의 역사적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된 기존의 태권도사는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며 특히 초창기의 태권도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시대적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양진방, 1997:145).

한편, 태권도 역사이론으로 주도적이었던 전통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전통주의의 주장이 추상적, 고립적, 폐쇄적이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태권도의 원류를 해방이후 일본 유학생들로부터 유입된 가라테로 보는 시각인데, 본 연구는 전통주의 태권도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기능하였던 ‘전통’에 대한 의미구현이 주된 목적이므로 수정주의의 입장은 소략하여 살피기로 한다. 수정주의 태권도사의 주요골자는 다음의 주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

태권도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유학하며 가라테를 배웠던 초기 사범들에 의해서 광복 후에 발전된 무예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광복 후 태권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생들이 수련한 가라테를 한국에서 지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택견의 기술들은 광복 이후 태권도의 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발기술에 더 많은 득점을 주는 경기규칙으로 인해서 현대 태권도의 모습이 택견과 유사하게 변하였다는 것이다 (김달우, 김방출, 2008:42-43).

수정주의¹¹⁾의 등장은 양진방(1986)이 가라테 유입설을 주장한 ‘해방 이후

11) “태권도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태권도사 관련 대안이론은 양진방의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1986)와 김용옥의 “태권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12)를 그 기점으로 본다. 또한, 김용욱(1990)이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13)를 통해 가라데 유입설을 지지하면서 수정주의의 입장을 공고히 하였으며, 이후 양진방(1997)14)은 전통주의 역사기술의 증대한 한계로 첫째, 사실의 왜곡, 건강부회, 무리한 확대해석 등 사실성의 부족, 둘째, 역사적 메시지와 의미의 결핍, 셋째, 태권도사로서의 독립성과 폐쇄성, 넷째, 역사적 내용의 추상성 등을 지적하며 태권도역사의 사실적 맥락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통주의와의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전통’의 인식론적 의미

‘전통’은 전통주의 태권도사의 보편적이면서 핵심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신화적 기술,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라는 비난이외에도 인식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주의 태권도사의 문제점은 태권도의 역사적 실체를 강조한 나머지 사료 속의 맨손 격투 기사를 모두 태권도로 환원시키며, 나아가 민족주의적인 시각, 고유성(전통성)의 강조, 배타성,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태권도에 투사해 역사를 서술한다는 데 있다(최복규, 2018).

전통주의 태권도사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은 “태권도의 정통성의 역사적 근거 마련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맨손무술을 태권도의 역사적 모습으로 규정”(양진방, 1997)함에 있다. 따라서

도 철학의 구성원리”(1990)이다”(송형석, 2002:8).

12) 양진방(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3) 김용욱(1990).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14) 양진방(1997). 태권도 역사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논의.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8(2), 19-29.

태권도는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전승되어 현재에 이른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인 까닭에 주변문화와의 어떠한 접변현상도 철저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을 통해 태권도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단절 없이 전승되어 온 독창적인 민족고유의 신체문화임을 특징적 가치로 규정하고 그 사상적 기반역시 전통사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주의의 핵심논리인 전통과 민족주의적 경향의 강조는 태권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무술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인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 대두된 스포츠 지향적 무도 개념에 대한 반사적 경향의 하나로, 전통적 무도 개념의 강조는 전근대적인 정신주의적 무도의 재강조나 재해석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통적 정신주의 무도 개념의 근본적 오류는 정신 수련적 가치와 실전 지향적 기술에 대한 혼동과 오류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무도 개념은 특히 현대 한국의 무도 문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목적론적 또는 편향적 무도 개념은 무도가 세계화된 현대 국제 사회에서 무도의 올바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스티븐 캐페너, 1998:84).

전통주의는 “신화적 역사 서술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화되는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최복규, 2018)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평가이면에는 여러 가지 역사인식과 관련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⁵⁾ 전통주의의 논리적 한계는 전통무예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오로지 전통성 확

---

15) “전통주의는 수박, 권법, 택견 등과의 연관성을 주장하여 우리나라 전통무술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수주의적 입장으로 학문적 약점을 드러낸다. 요컨대 우리나라 전통 무예와 태권도는 필연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후자는 태권도의 발기술을 택견의 발기술에 기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태권도 본질과의 일치는 아니며 단지 속성의 유사성일 뿐이다”(이주석, 안용규, 2013:210).

보에 급급한 건강부회한 해석으로 인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¹⁶⁾ 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이유를 이주석, 안용규(2013)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자료 소실과 태권도 품새와 가라데형의 유사성에서 오는 한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에 대한 지나친 집착 즉, 태권도가 한국적 전통아래 부단히 전승된 고유의 문화로, 주변문화와의 어떠한 연관성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상 맨손 타격 무술과 관련된 문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박이나 권법 등의 무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주의의 큰 문제이다. 수박이 보통명사인지고유명사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고려시대 모든 맨손 타격 무예를 수박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수박의 운동형식을 갖춘 맨손 타격 무예인지 형체가 없기에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학준, 2019:48).

그렇다면 사료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전통에 집착하고 전통무예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와 해답을 다음의 주장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이 일차적으로 암시하는 ‘시간의 축적’과 ‘연속’이라는 이미지는, 그것이 불변하는 것이며 자명한 것이라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간의 풍화를 견딘 것에 대한 무의식적 믿음이 개재된 결과로 생각되는 이 착시는, ‘전통’이 ‘전통’으로 성립하는 조건을 망각하게 한다.¹⁷⁾ 그러나 전통은 현재에

16)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인한 무리한 확대해석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태권도의 전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너무 급급한 나머지 유물, 유적에 관한 기초자료 없이 과대 평가에 따른 사실성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김길평, 1998:34).

17) “이러한 이유로 전통은 ‘계승’, 혹은 ‘단절’이라는 틀에서 논의되기 쉽다. 그러나 ‘계승’, ‘단절’ 모두가 전통이 수립되는 과정이자, 전통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또한 전통이 가진 動的속성에 포괄될 수 있다” (임근택, 2011:325).

서의 선택과 추인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옛 것’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전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재에서 선택되고 추인된 것만 전통으로서의 권위와 규범성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전통을 전통으로 만드는 ‘현재, 혹은 당대의 조건’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임곤택, 2011:325).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면 전통주의가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의 축적과 연속이라는 전통의 속성을 불변하는 진리로 인식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 일반적인 속성을 김부찬(200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속성’이란 역사주의라 할 수 있다. 전통은 단절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지속성을 전제로 한다. ‘고유성’이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구별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특이한 원형적인 성격을 말한다. 물론 고유성은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 겉모습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 ‘현재성’이란 현실적인 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생활세계에 영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와 유리된 과거만의 것이라면 이는 역사적 유산이지 전통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김부찬, 2006:59).

전통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자칫 역사적 시원만을 전통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지속성과 고유성의 가치에 집착한 역사해석은 태권도사 연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

18) “전통주의 태권도사는 이러한 전통의 기준 중에서 지속성과 고유성을 강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지나치게 ‘전통’을 강조하면서 균형 있는 문화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보편타당성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과 우리 것을 지나치게 분리하거나 역사적 기원의 始原性을 따져 자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등의 국수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 경우도 나타났다”(나영일, 최복규, 김성재, 2001:298).

그러나 역사 인식에 있어 전통이라는 개념은 그 시원과 단절되지 않은 장구한 역사만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음이 다음의 주장을 통해서 감지된다.

결국 전통은 광의로는 과거부터 전해진 문화유산을 말하지만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파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존재로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전해진 사상·관행·행동·기술의 양식 등은 관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지닌 문화유산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전통은 같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속성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 전적으로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잊혀졌던 것이 다시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재평가되기 때문이다(나영일, 최복규, 김성재, 2001:305-306).

태권도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곧 태권도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태권도 역사를 정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나 역사연구에 있어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사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권택(2011)의 주장처럼 초기의 전통주의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과거’만을 중시하고,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 문화만을 ‘전통’으로 인식하는 발생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 ‘개연성’이라는 개념으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만 천착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면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료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이 내포한 지속성과 고유성의 가치는 어떠한 의미로 구현

19) “문화의 기원론은 문화의 발생근거를 밝히는 연구이다. 발생근거는 발생시기와 장소, 주체, 문화적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분명해진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문화를 생산했는가 하는 것을 설득력있게 말하는 것이 기원연구의 목표이다. 따라서 기원연구는 쉽지 않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작업인데 자료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임재해, 2009:579).

될 수 있는지 다음의 주장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그들만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고유성이다.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고 개성의 문제라면, 즉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시원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조가 어디인가 또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이나 독특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조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우리가 개성과 독특함을 붙여넣고 또한 갖게 했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탁석산, 2005:86).

이러한 주장은 바로 전통의 입증 즉, 전통주의가 태권도의 원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전통무예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통’이라는 개념의 범주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전통이 반드시 시원만을 전제로 해야 하는 불가침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전통’에 내포된 ‘지속성과 고유성’의 개념은 ‘고대로부터의 끊임없는 전승’만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계승’과 ‘단절’ 모두가 전통이 수립되는 과정이자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임곤택(2011:325)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양진방(1986)은 태권도가 경기화를 통해 화려하고 풍부한 태권도 발차기 기술체계와 경기방식을 정립하면서 가라테와 택견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독자적인 무술로 발전하여 이미 세계에 그 우수성을 입증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가 되어 있음을 주장한다.²⁰⁾ 허건식, 남덕현(2015)은 가라테유입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오키나와 강제 합병이후 냉대 받았던 가라테가 일부무도로 기정사실화 되고 일본의 전통이러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논지로

20) 양진방(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태권도가 가라테의 형태를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주체적 의지로 그것이 한국적인 특성과 문화적 개성으로서 재창조 되는 것은 분명 전통으로 볼 수 있는 것” (허건식, 남덕현, 2015:19)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태권도의 역사는 고대로부터가 아닌 해방이후부터 정립되어도, 구태여 가라테 유입설을 부인하고 태권과의 기술적 동질성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태권도만의 지속성과 고유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가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태권도사의 형성과정을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입장이 지니는 의미와 함께, 태권도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기능하였던 ‘전통’의 의미를 회의하여 태권도사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태권도사의 형성과정에서 전통주의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고, 초창기 태권도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주의를 통하여 당시의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정주의의 등장은 태권도사의 단순한 분화가 아니라 기존의 이론체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이다. 전통주의와는 다른 실증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또 다른 세계관이 등장하여 태권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태권도사는 훨씬 더 풍부하고 공고해진 것이다.

셋째, ‘전통’은 그 시원(始原)과 단절되지 않는 장구한 역사만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계승’과 ‘단절’ 모두가 전통이 수립되는 과정임을 이해한다면 태권도는 굳이 과거의 역사를 소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적인 특성과 문화적 개성으로 재창조된 ‘전통’임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기원(2005). **태권도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 김경지(1993). **태권도학 개론**. 서울: 경운문예원.
- 김기홍, 김동규(2005). 태권도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13(2), 89-102.
- 김길평(1998). 태권도사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역사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7(2), 21-38.
- 김달우, 김방출(2008). 한국 전통 무예로서의 태권도사 재조명. **한국체육사학회지**, 13(3), 41-52.
- 김두호, 박철호 역(1994). **현대 이데올로기**. 서울: 인간사랑.
- 김방출(2006). 태권도사 논쟁에 대한 쟁점과 과제. **체육과학연구**, 17(1), 75-82.
- 김용옥(1990).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 나영일, 최복규, 김성재(2001). 전통무예의 문제점과 과제. **대한무도학회지**, 3(1), 295-314.
- 송형석(2002). 태권도이론의 새 방향 -역사와 철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29, 121-140.
- 송형석, 이규형(2008). 태권도 역사논쟁: 신전통주의의 수정주의 비판에 대한 예비 판.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157-177.
- 스티븐케페너(1998). **동양무도수련관의 변천과 현대적 의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건훈(2007). **역사와 역사관**. 경기: 서광사.
- 안재찬(2016). 태권도 역사 담론에 대한 논리적 탐구. **한국체육학회지**, 55(1), 49-59.
- 양진방(1997). 태권도 역사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논의.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8(2), 143-152.
- 양진방(1998). 무술, 무예, 무도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9(1), 19-29.

- 양진방(1986).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경훈, 빙원철(2009). 태권도의 전통사상과 현대적 의미에 관한 고찰. **대한무도학회지**, 11(2), 93-105.
- 이주석, 안용규(2013). 태권도 정체성 담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21(1), 205-221.
- 이학준(2019). 태권도의 문화 접변과 창조적 변용. **한국체육철학회지**, 27(2), 46-54.
- 임곤택(2011).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39), 323-345.
- 임재해(2009). 탈춤 기원론의 쟁점과 상고시대 탈춤문화의 뿌리. **한국민속학회**, 50(1), 577-618.
- 장희식(2016). 태권도 원류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3, 163-200.
- 차명환(2014). 미셸 푸코의 관점으로 본 한국무술의 기원. **한국체육학회지**, 53(3), 35-43.
- 최복규(2018). 전통주의 태권도사 서술의 문제점. **국기원 태권도연구**, 9(1), 1-22.
- 최흥희(1966). **태권도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 탁석산(2005).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 허건식, 남덕현(2015). 한·중·일 맨손무예 교류와 전통의 의미로 본 태권도 재해석. **국기원 태권도연구**, 6(2), 1-22.

ABSTRACT

Taekwondo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 Tradition”

Cha, Myong-Hwan(Yong-in Univ.)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 of changes in Korean Taekwondo history through its formation process, discuss the meaning of “tradition” , which functioned as the core concept in the Taekwondo history study, and expand the epistemological extens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First, the value of traditionalism shall be respected in terms of responding to social and cultural demands to promote national pride and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aekwondo history in the initial stage while forming Taekwondo history. It will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paradigm of understanding history at that time through this. Second, the emergence of revisionism was not just a simple differentiation in Taekwondo history, but an opportunity for introspecting about the existing theoretical system. Taekwondo history was enriched and stabilized by viewing Taekwondo from a new perspective owing to the emergence of a different worldview, armed with objectivity and rationality, different from traditionalism. Third, a long history, not disconnected from the origin, is not the only required condition of “tradition” . If it is understood that “succession” and “disconnection” are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tradition, it shall be acknowledged that Taekwondo is already a tradition, which has been recreated with Korean traits and characteristics.

Keywords: Taekwondo history, tradition, epistemology

논문투고일 : 2020.06.29.

심사일 : 2020.07.10.

심사완료일 : 2020.07.30.